새로운 분위기의 9홀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27홀 개장
예약 : www.hpdynasty.co.kr 080) 320-7700

‘V10’ 가는 길 실책 줄여라

작은 실수가 단기전 승부 갈라 … 선수들 부족한 2% 채우기 맹훈

4일훈련 1일휴식 일정으로 한국시리즈 준비를 하고 있는 KIA 선수단이 수비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하고 있다. 김동재 수비코치(오른쪽에서 세번째)가 시뮬레이션 훈련이 끝난 후 투수들에게 수비 지도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국시리즈 우승을 위해 2% 부족한 수비를 잡아라.

KIA 타이거즈가 연일 구슬땀을 흘리며 ‘V10’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오전 특타조의 연습으로 시작되는 KIA의 훈련은 오후 1시30분 선수단 워밍업과 함께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오후 5시30분까지 계속되는 훈련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수비다.

각각의 포지션별로 공을 받는 연습을 하는 것은 물론 투수조와 야수조들이 함께 수비 시뮬레이션 훈련을 하면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수비 훈련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투수조와의 합동 훈련 이후 야수조들은 따로 주자가 있는 상황을 연출하면서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훈련의 극적인 효과를 위해 조 감독은 발 빠른 2군 선수들까지 불러들여 주자 임무를 맡겼다.

수비에 공을 들이는데는 이유가 있다. 올 시즌 든든한 선발진과 최희섭·김상현이 버틴 중심타선의 한방으로 정규시즌 1위를 달성한 KIA지만 수비는 약점으로 꼽힌다.

특히 내야는 KIA의 아킬레스건이었다. 지난해 유격수 자리를 지켰던 김선빈은 매서운 타격에 미치지 못하는 설익은 수비로 2군에 내려갔고, ‘수비의 달인’ 김종국도 올 시즌 결정적인 실책을 잇달아 기록하며 2군에 머문 시간이 많았다. 올 시즌 2루를 지켜왔던 안치홍은 수비가 많이 안정되기는 했지만 이제 막 프로에 발을 내디딘 신인이다.

‘핫코너’ 3루도 뜨거웠다. 3루수 김상현은 폭발적인 공격력으로 타격 3관왕(홈런·타점·장타율)에 등극했지만 최다실책의 불명예도 함께 얻었다.

살얼음 승부가 벌어지는 단판승부에서 수비는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불안한 수비는 마운드에도 바로 영향을 미친다. 어린 투수가 많은 KIA에게 수비 실책은 마운드 붕괴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준플레이오프 1차전 승리를 챙겼던 롯데도 수비에서 두산에 완패를 당하며 가을 잔치에서 쓸쓸히 퇴장했다.

SK와 두산, 한국시리즈의 남은 한 자리를 놓고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두 팀은 2년 연속 한국시리즈 경험을 했다. 12년 만에 한국시리즈를 준비하는 KIA 입장에서는 긴장감이 더한하다.

올 시즌 누구 못지 않게 가슴을 졸여야 했던 김동재 수비코치도 그만큼 더 바빠졌다. 선수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칠 수 없다.

김 코치의 한국시리즈 대비책은 ‘기 살리기’다. 선수들이 자신감을 갖고 실수없이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게 승리를 향한 최선 방법이라는 게 김 코치의 생각이다.

작은 실수에서 승패가 갈리게 되는 한판 승부. KIA 선수들은 8일 오후 6시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청백전을 갖고 한국시리즈 중간점검에 나선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U-20축구대표팀 선수들이 7일 (한국시각) 이집트 카이로 JW 메리어트호텔 숙소 내 풋살구장에서 이케다 세이코 피지컬 트레이너의 지도로 8강 승리를 위한 회복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명보호 ‘이집트 신화’ 쓴다

U-20 월드컵 내일밤 가나와 4강 길목 운명의 일전

한국 20세 이하(U-20) 청소년 축구대표팀의 8강 상대가 아프리카의 강호 가나로 결정됐다. 가나는 6일 밤(이하 한국시간) 이집트 이스마일리아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남아프리카공화국과 16강전에서 연장 전반에 터진 아디이아의 결승골에 힘입어 2-1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이로써 한국과 가나는 9일 밤 4강으로 가는 길목에서 운명의 일전을 벌인다. 경기 전에는 가나의 우세가 점쳐졌었다. D조 1위로 16강에 올라온 가나는 예선 세 경기에서 8점을 올린 반면 실점은 3점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F조 3위 와일드카드로 16강에 턱걸이한 남아공은 4점을 뽑은 반면 6점이나 내주면서 수비 문제점이 지적됐다.

0의 균형은 후반전에서 깨졌다.

남아공의 에라스무스는 후반 13분 센터서클에서 길게 올라온 공을 오프사이드 트랩을 뚫고 페널티지역과 골지역 중간에서 오른발로 잡아놓은 뒤 골키퍼를 제치고 여유있게 골대 안으로 집어넣어 1-0으로 앞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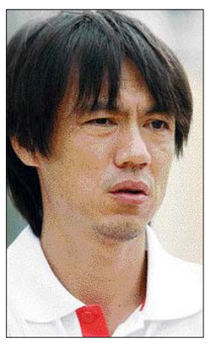
가나는 그대로 무너지지 않았다. 후반 21분 왼쪽 페널티지역 10m 부근에서 올라온 프리킥을 아예우가 골지역 정면에서 그대로 헤딩으로 방향만 틀어넣어 골망을 흔들며 승부를 1-1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가나는 이후 움직임이 급격히 저하된 남아공 수비라인을 숨 쉴 틈 없이 공략했지만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결국 승부는 연장전으로 넘어갔다.

남아공 골문을 위협하던 가나의 아디이아는 연장 전반 9분 페널티아크 왼쪽 2m 부근에서 수비 2명을 달고 드리블하다 그대로 오른발 강슛을 날렸고, 이 공은 골대 오른쪽 구석에 정확히 박혔다. 남아공 골키퍼가 손을 힘껏 뻗어봤지만 상당한 차이가 날 정도로 완벽한 골이었다.

/연합뉴스

“가나 저돌적인 팀…재미있는 경기 될 것”



■ 홍명보 감독 일문일답

“가나는 공격력이 좋고 공격수들의 개인 능력이 뛰어나다. 한마디로 저돌적인 팀이다.”

한국의 20세 이하(U-20) 대표팀 사령탑인 홍명보 감독은 7일(한국시간) 200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8강 상대인 가나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다음은 홍명보 감독과 일문일답.

-가나를 평가한다면.

▲공격력이 강하고 공격수들의 개인기가 뛰어나다. 스피드가 빨라 강한 팀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아프리카 선수권에서 우승한 강팀이다.

-어떻게 가나와 맞대결을 준비하나.

▲빨리 선수들이 컨디션을 회복해야 한다. 비디오를 보며 선수들의 개인 특성을 파악해 잘 대처하겠다.

-무바라크스타디움에서 조별리그 3경기를 했는데.

▲잔디가 큰 강점이다. 가나는 푹신푹신한 잔디 적응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탈리아와 4강에서 맞붙을 수도 있을 텐데.

▲재미있는 경기가 될 것이다. 기본적인 것은 수비 조직력이다. 공격이 끝나면 곧바로 수비에 가담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와 인연은.

▲16세 이하 대표팀에서 활약했어도 19세 이하 팀에는 뛰어보지 못했다. 1983년 4강 신화를 달성할 때 중학생이었는데 등교 시간에 버스에서 라디오로 들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김보경이 경고 누적으로 못 뛰는데.

▲(이승렬과 조영철로서는 선발로 뛸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다. 다른 선수들이 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인식했을 것이다. 좋은 능력을 갖춘 선수들이라 걱정하지 않는다.

-드러나지 않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미드필더 라인이다. 미드필더들이 압박을 해주지 않으면 상대 공격의 흐름을 끊기 어렵다. 또 수비진의 윤석영과 김영권, 홍정호, 오재석은 물론 수비형 미드필더인 문기한 같은 선수들이 제 역할을 못해줬다면 여기까지 올라오지 못했을 것이다.

-8강을 앞둔 선수들에게 해줄 말은.

▲겸손하고 차분하게 기다리라고 이야기해준다. 우리는 어려울 때 더욱 강했다. 카메룬과 독일, 미국과 경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강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적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자만심이다. 겸손하게 경기를 기다려야 한다.

/연합뉴스

조직력으로 4강 길 뚫는다

공격축구엔 공격으로
김민우 ‘최다골’ 관심
가나 ‘단신투톱’ 막아야

■ 가나전 관전포인트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20세 이하(U-20) 축구대표팀이 오는 9일(한국시간) 오후 11시30분 이집트 수에즈의 무바라크 스타디움에서 아프리카의 ‘강호’ 가나와 8강 대결을 펼친다.

가나는 올해 아프리카축구연맹(CAF) 선수권대회 결승에서 카메룬을 2-0으로 꺾고 우승했던 아프리카 챔피언으로 이번 대회 D조 조별리그를 1위(2승1무)로 통과하고 나서 16강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연장 접전 끝에 2-1 역전승을 거두고 8강에 오른 강팀.

이번 대회까지 통산 다섯 번 출전했고 1993년 호주 대회와 2001년 아르헨티나 대회 때 각각 준우승을 차지했다.

4-4-2 포메이션을 쓰며 투톱으로 나서는 랜스포드 오세이와 도미니크 아디야가 매서운 공격력을 자랑한다.

◇**김민우, 한국 선수 최다골 기록 깨나.**= 1979년 일본 대회부터 참가해 이번까지 11번째 본선 무대를 밟은 한국 선수 중 최다골은 지난 1983년 멕시코 대회 회 4강 신화의 주역인 신연호 SBS스포츠 해설위원의 3골이었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청소년 대표팀의 최단신(172㎝) 미드필더 김민우가 파라과이와 16강까지 세 골을 넣어 신연호 위원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지난달 27일 독일과 조별리그 C조 2차전에서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렸고 6일 파라과이와 16강에선 혼자 두 골을 폭발하는 빼어난 골 감각을 뽐냈다.

김민우가 한 차례만 더 골망을 흔든다면 신연호 위원을 넘어 한국 출전 사상 단일 대회 최다골 신기록을 세운다.

◇**투톱 아디야-오세이 ‘경계령’**= 가나 대표팀의 간판 골잡이인 도미니크 아디야(20.프레드릭스타드)와 랜스포드 오세이(19.트벤테)가 가장 위협적인 공격수다.

아디야와 오세이는 162㎝와 168㎝의 단신에도 스피드와 위치 선정 능력이 좋고 강한 슈팅력을 가졌다.

아디야는 7일 남아프리카공화국과 16강에서 1-1로 팽팽하게 맞선 전반 대포알 같은 슈팅으로 역전 결승골을 터뜨리는 등 네 경기에서 네 골을 사냥했다.

또 지난 2007년 한국에서 열린 17세 이하(U-20) 월드컵에 참가해 6골을 터뜨리며 가나의 준결승에 앞장서고 득점 부문 2위에 올랐던 골잡이다. 오세이는 지난 1월 아프리카 축구연맹(CAF) 청소년선수권에서도 일곱 차례나 골망을 흔들어 우승을 이끌었다.

◇**일정과 잔디는 한국에 유리**= 한국은 8강 맞대결 상대인 가나보다 하루 일찍 16강을 치러 체력을 비축했다. 반면 가나는 16강 연장 접전까지 치러 체력이 많이 소진됐다. 또 주전 선수인 미드필더 아베이쿠 콘사와 오포쿠 아겜망이 경고 누적과 퇴장으로 8강에 나올 수 없다.

또 수에즈는 한국이 C조 조별리그 세 경기를 치렀던 곳이라 익숙하다. 특히 한국 선수들은 축구화가 푹푹 빠질 정도로 뛰기에 어려운 무바라크 스타움의 ‘스폰지 잔디’에도 적응이 된 상태다. 한국은 조별리그 3차전에서 지거나 비기면 탈락하는 상황에서 미국을 3-0으로 대파했고 파라과이와 16강에선 선수들이 카이로 스타디움 잔디를 경기 전에 밟아보지 못한 채 휴식 시간이 하루 적은 악조건을 딛고 역시 3-0 대승을 낚았다.

오랜만에 유리한 조건에서 경기하는 태극전사들이 장점을 살려 상대적으로 나쁜 조건의 가나를 넘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한국-가나 예상 라인업

골리앗 최홍만 - 공룡 샤킬오닐과 맞짱?

美 격투기 매체 팬하우스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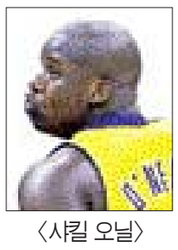
‘테크노 골리앗’ 최홍만(29)과 미국프로농구(NBA) ‘공룡 센터’ 샤킬 오닐(27·클리블랜드)의 맞대결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 격투기 매체 팬하우스(MMA.fanhouse)는 7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최홍만이 오닐의 종합격투기 도전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NBA 2009-2010 시즌 개막을 앞두고 몸만들기에 들어간 오닐은 평소 격투기에 관심을 보이면서 틈틈이 MMA 훈련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오닐이 트레이닝복 차림에 땀을 흘리면서 “농구계를 은퇴하면 호세 칸세코를 이겼던 최홍만과 MMA 룰로 맞붙고 싶다”고 말하는 장면이 인터넷에도 공개됐다.

〈최홍만〉



〈샤킬 오닐〉

최홍만은 오닐의 도전을 수락할지를 묻는 말에 “기회가 생기면 그렇게 하겠다”고 이메일을 통해 답변했다고 팬하우스는 전했다.

/연합뉴스